

한형조 무문관 탐방

32

육조의 의발 ①

儼然一際。 嶺曰， 描不成兮畫不就， 贊不及兮體生受。 本來面目沒處藏， 世界壞時渠不朽。

앞에서도 말했듯이 선에는 시간이 없다. 시간이 없으니 역사가 없다. 선의 역사를 재구성하려는 학자들의 시도에, 가로 놓인 걸림돌이 이것이다. 선뿐만이 아니다. 대체로 초월을 지향하는 선 비유적 전통들은 대체로 이런 문제를 공유하고 있다. 비판적 역사학은 '연대와 사건을 확정지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료로서의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이 기준에 의하면 인도의 역사를 기술하기는 불가능하고 불교도 또한 예외가 아니다. 경전들의 저작년대와 저작자를 보라. 명백한 후기 저술인 대승의 경전들도 그 성립시기를 세존의 전 법기간에 비정하고 있고, 중국에서 지어졌을지도 모르는 후기대승의 작품, <대승기신론>은 초기의 현자 아슈비고사(阿濕波)의 이름을 달고 있다. 불교학과 불교사의 전통을 객관적이고 학문적으로 읽으려는 사람들에게 있어 이것이 얼마만한 장애인지는 겪어본 사람들만이 안다.

그런데 불교의 근본정신은 이런 작업을 비롯하여 한심하게 여긴다. 진리는 쓰여진 기록이나 역사 속에 있지 않다. 연대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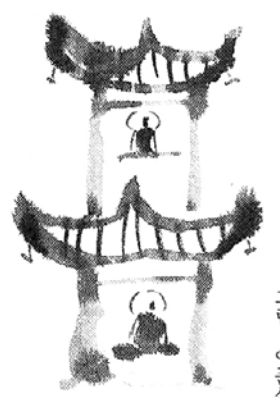


그림 · 이준석

*해명상좌가 자신을 좇아 대유령에 이른 것을 보고, 육조는 의발을 들 위에 던지면서 이렇게 말했다. "이 옷은 믿음을 상징하는 것이니 힘으로 다룰 수 있겠는가. 그대에게 맡길테니 갖고 가거라." 해명이 다가가 집어들었는데, 옷은 태산처럼 꿈쩍도 하지 않았다. 해명은 두려움에 머뭇거리며 말했다. "저는 진리를 구하려 왔지, 옷때문에 온 것이 아닙니다. 원컨대 행자께서는 깨달음을 열어 보여 주십시오." 육조가 말했다. "선(善)을 생각하고 악(惡)을 생각할 때 바로 그때 너의 본래면목(本來面目)은 어디 있는가." 이 말에 명상좌는 크게 깨닫고 온 몸이 땀에 흠뻑 젖었다. 그가 울며 예를 올리면서 물었다. "조금 전의 비밀의 말씀, 비밀의 뜻 외에 또 다른 가르침이 있습니까?" 육조가 말했다. "내가 지금 너에게 말한 것은 비밀이 아니다. 네가 스스로 자신의 면목을 되돌아켜 본다면 비밀은 바로 너에게 있다." 해명은 말했다. "제가 황매산(黃梅山)에서 무리와 더불어 있을 때는 자신의 면목을 깨닫지 못했는데, 지금 그 비밀의 연구에 대한 가르침을 듣고 보니 흡사 물을 마셔 차고 뜨거움을 알듯 사태가 분명해졌습니다. 지금 행자시야말로 제 스승이십니다." 육조가 말했다. "그렇다면 나와 너는 한

어떤 장수가 석가모니 부처님이야 말로 이 세상에서 가장 두려움이 없는 분이라는 말을 듣고 내심 불쾌한 생각이 들었다. 자신이야말로 용기 있는 사람으로서 힘이 셀 뿐 아니라 수많은 전쟁터에 나가 여러번 죽을 고비를 맞이 했을 때에도 아무런 동요가 없을 만큼 태연했고 지금도 세상의 무엇이 찾아오건 겁이 나는 일이 없다고 자부했기 때문이었다. 그가 부처님이 계신 제자와 수도원에 도착했을 때 부처님께서는 살림을 마치고 여러 제자들과 함께 고요히 앉아 선정에 잠겨 있었다. 장수는 어색한 심정으로 한쪽편에 앉아 부처님과 제자들의 모습을 바라

십력(十力)

보았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 장수는 꾸벅꾸벅 졸고 있었다. 그때였다. 갑자기 우루루 광 하는 소리가 들렸다. 장수는 깜짝 놀라 벌떡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수는 갑작스런 소리에 놀란 자신을 진정시키면서 주위를 보았다. 그런데 이게 웬 일인가. 놀라서 일어난 것은 자신 뿐이었다. 부처님을 비롯한 많은 이들이 아무 소리도 못들었다는 듯이 얼얼하니 돌리지 않고 그대로 앉아 있었다. 장수는 자신의 그러한 모습에 부끄러운 생각이 들었다. 그러자 부처님께서 장수의 이러한 마음을 다 아셨는지 다음처럼 타이르셨다. "장수여, 이 세상에서 가장 으뜸가는 승자는 자신이 자신을 이긴 자며 가장 으뜸가는 힘은 자신을 극복시

法數로 배우는 불교

(42)



◇현정 작 '가장 자연스런 호흡'

실상 꿰뚫는 부처님의 10가지 지혜 중생은 헛된 재산·학식 등에 의존

키는 힘이다. 장수는 비록 전쟁터의 죽음 앞에서도 두려움이 없었으나 하찮게 없는 그릇 깨지는 소리에 마음이 흔들렸소. 그것은 그대의 내면에 번뇌가 있기 때문이다. 번뇌가 완전히 사라진 자만이 진정한 힘과 두려움이 없는 용기를 갖추었다고 하는 것이요.

정려해탈등지등지력(靜慮解脫等持等智)으로 마음을 관찰하고 집중하는 선(禪)을 수행할 때에 순차적으로 일어나는 경계와 단계를 잘 아는 지혜의 힘이다. 넷째, 근상지력(根上下智)으로 중생의 성품과 차원의 높고 낮음을 잘 알고 수행을 하여 알게 될 경지가 어디까지 인가를 분명히 아는 지혜의 힘이다. 다섯째, 종중승해지력(種智勝解智)으로 중생들이 가지고 있는 갖가지 소원과

바깥 대상에 대하여 일으키는 견해들을 밝게 아는 지혜의 힘이다. 여섯째는 종중계지력(種智解智)으로 중생들 각자마다 다른 성격과 의식들을 다 아는 지혜의 힘이다. 일곱째, 번취행지력(遍趣行智)으로 중생이 나고 죽는 과정과 장소 그리고 행위에 따른 인과응보의 법칙을 확실히 아는 지혜의 힘이다. 여덟째, 속주수념지력(宿住隨念智)으로 전생의 온갖 일을 기억해 내어 현재에 해야 할 일을 잘 판단하는 지혜의 힘이다. 아홉째, 사생지력(死生智)으로 중생이 죽을 때 태어날 때를 알려 내세에 받게 될 선과 악의 과보와 안상을 아는 지혜의 힘이다. 열번째는 누진지력(漏盡智)으로 자신의 번뇌가 다하여 다시는 나고 죽음이 없음을 바르게 알뿐만 아니라 수행하는 다른 이들의 번뇌도 끊기는 것을 분명히 보는 지혜의 힘이다. 부처님을 가리켜 일체승자(一切勝者)며 일체지자(一切知者)라 부른다. 이는 내면의 번뇌를 초극하여 제법의 실상을 확실히 아는 지혜를 체득하고 중생을 이끌어 주시기 때문에 부르는 호칭이다. 어리석은 중생들은 장수처럼 자신의 육체와 욕망에 의존하여 재산과 명예, 학식 또는 무력 따위로 힘을 삼는다. 하지만 이런 것들은 무상하고 헛된 것으로 진정한 것이 아니다. 오로지 진정한 것이 있다면 수행에서 얻어진 깨달음의 힘 부처님의 열가지 힘만이 있을 뿐이다.

이제 열 <유마선원장>

善惡 떠나 네마음 어디 있는가

"본래 면목은 말이나 그림으로 그릴 수 없다"

개 황매를 스승으로 모신 셈이 된다. 그것을 잘 지켜라." *나 해가 말한다. "육조의 이 일은 물려서 한 일이고, 지나친 노파심의 결과이다. 이 틀레면 리즈 과일의 껍질을 벗기고 씨를 빨라내어 네 입에 넣어주는 격이니, 너는 그저 한 입에 삼킬 일이다." *송하여 가로되, "팔로도 그릴 수 없고 그림으로도 그릴 수 없네. 찬탄도 미칠 수 없으니 권한 수고는 관두시게. 본래면목은 갈무리 할 데가 없으니 우주가 무너져도 그것은 썩지 않으리." 不思議: 六祖，因明上座，致大寅嶺，祖見明至，即擲衣鉢於石上云，此衣表信，可力爭耶，任君將去，昨遂學之，如山不動，踞巖煉煉。明曰，我來求法，非爲衣也。願行者開示。祖云，不思議不思議，正與樂時，那箇是明上座本來面目。明當下大悟。遍體汗流。泣淚作禮曰，上來密語密意外，還更有旨否。祖曰，我今爲汝說者，即非密也。汝若返照自己面目，密却在汝邊。明云，某甲雖在黃梅隨衆，實未省自己面目，今蒙指授入處，如人飲水冷暖自知。今行者即是某甲師也。祖云，汝若如是，則吾與汝同師黃梅，善自護持。無門曰，六祖可謂，是事出急家。老婆心切，譬如新荔枝，剝了殼去了核，送在儼口裏。只要

비정하고 작자를 밝히며 개념과 사상의 발생적 기원이나 발전적 연관을 따지는 것이 불교의 근본진리와 무슨 상관이나 구분. 그런 지도 못한다. 진실로 중요한 것은 보통사람의 눈을 비껴가기 십상이다. 장자 천도(天道)편에는 이런 얘기가 실려 있다. 제환공(齊桓公)이 당상(堂上)에서 책을 읽고 있는데 마당에서 바퀴를 쥐고 있던 장인이 다가와서 물었다. "대체 무얼 읽고 계십니까?" 제환공은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성인이 남기신 글이다." "그분들은 어디 계십니까?" "이미 죽고 있지." "그렇다면 읽고 계신 것은 옛 사람의 제끼기가 아닙니까?" 예상 못한 할난조에 환공이 버럭 화를 냈다. 장인은 이렇게 해명했다. "저는 수레를 만드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바퀴의 굴대구멍을 깎을 때 너무 많이 깎으면 험겁고, 적게 깎으면 딱딱해서 들어가지 않습니다. 정확하게 깎는 것은 손의 감각에 달려 있습니다. 그 노하우는 마음에 있을 뿐, 말로는 표현할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가르칠 수도 없고 자식은 배울 수가 없어, 나이 칠십이 되도록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옛 사람들도 그러했을 것입니다. 그들은 전할 수 없는 것을 안고 죽었습니다. 그러니 제후께서 읽고 계신 것은 그 나머지 제끼기일 뿐입니다." <한국정신문화연구원 교수>

불교와 수학

35

할과 번득임

김용운

선문답에서 '할(喝)'이 자주 등장한다. 만화적이기는 하지만 때로는 제자의 물음에 대해 답이 공해지면 스승이 '할(喝)' 한 마디로 열버무리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다. 한 수도승이 임제 화상에게 "스승님은 불법의 큰 이치를 누구에게 이어 받았습니까?"하고 물었다. 임제의 스승은 만백(萬葉)이다. 제자가 그 사실을 알고 있고 임제 자신도 그렇게 답할 수도 있었지만 임제는 "나는 세 번 그것을 듣고 세 번 두드려 맞았다"고 답했다. 이때 그 제자는 그 뜻을 다시 물으려 했다. 그러자 임제는 '할(喝)'하고 "허공에 못박히지 말라"고 했다. 차공(處空)은 임제의 진여원성(眞如圓成), 즉 완전한 세계이다. 그 세계를 누구에게 가르침 받았는가를 묻는 것 자체가 무의미하다. 그것은 모든 것을 포함하는 무한(무한정)의 세계이며 관념화하는 것은 마치 쇠뿔을 허공에 박는 일과도 같다. 이때 임제가 제자에게 전하고자 한 바는 너도 '이 과정을 네 스스로 온몸으로 터득하라'는 것이며 그것을 '할(喝)' 한 마디로 표현했

과학속의 불교 불교속의 과학

140

다. 대오(大悟)의 길은 남에게 지시 받는 것이 아니며 오직 스스로 열어가야 한다. 그러나 제자는 논리로써 이해하려 머리를 움직였다. 그것을 알아차린 임제는 즉시 '할(喝)'을 던진다. 수학의 여러 대전제들이 대발명을 할 때의 계기는 마치 전설처럼 전해지고 있다. 뉴턴은 농장에서 휴식하고 있을 때 우연히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를 보고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다. 또 아인슈타인은 햇살이 구



그림 · 최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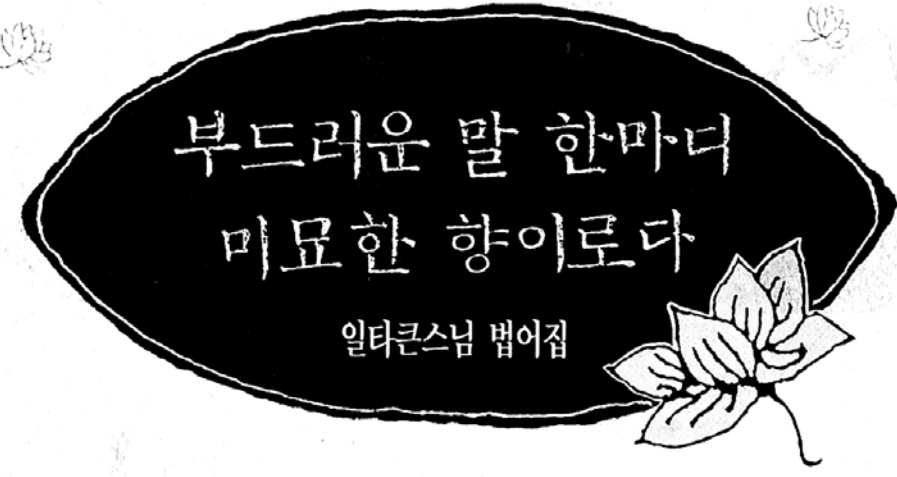
임으로 병어리는 앞에서 깨어난다. 이 순간 암암의 역할을 하는 것은 스승의 '할(喝)'이며 뉴턴에 있어서는 나무에서 떨어진 사과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계기가 대뇌에 섬광과 같은 번뜩임을 가져온다. 이 과정은 도저히 말(논리)로는 설명할 수 없는 경지다. 신비적이라고 할까? 의식되지 않은 또 하나의 내 세계가 스스로 움직이고 있는 것이다. 나는 학생들에게 "아무리 쉬운 문제일지라도 스스로 풀어야"고 말한다. 스스로 풀지 못해서 남이 가르쳐 준 10문제 보다 학습 효과가 훨씬 크다. 해답을 구하는데 고생하지 않으면 힌트, 또는 '할(喝)'을 얻을 기회가 없다. 과학자(수학자)로서 성공한 사람은 연구하는 대상(문제)을 스스로의 무의식 속에서 오랫동안 안고 있는 사람이다. 스승은 '할(喝)'을 함부로 하는 것이 아니다. 제자가 오래도록 안고 있는 문제가 무의식 속에 정착되어 스스로 하나의 모양으로 형성되어 가고 마지막 과정에서 '할(喝)'의 의미를 갖는다. 임제는 3번이나 얻어맞고서야 대오(大悟)를 얻었다. 처음과 두 번째의 '할(喝)'은 기(機)를 얻지 못했지만 3번째에는 대오(大悟)를 얻었다. 아무리 맞아도 무의식 속에 선기(禪機)가 충분히 자리 잡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것이다. <한양대 수학과 명예교수>

할 임제 '고함'으로 논리초월 관념타파

번득임 뉴턴 '떨어진 사과' 본순간 대법칙 발견

를 사이에서 신너머로 가는 것을 보고 상대성 원리의 중요한 힌트를 얻었다는 이야기 등 어떤 분야일지라도 학문적인 진리와 법칙을 얻는데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이것과 유사한 경험을 한다. 필자 자신도 작은 일기기는 하지만 스스로 하나의 개념과 그에 관한 정리를 수립한 적이 있었다. 그에 관련된 거의 모든 자료들을 몇 번이나 검토하고 이들의 공통되는 법칙을 찾으려 몇 개월 동안 고안하고 있었다. 어느 날 무심코 땅 위에 그려진 타원형의 모양을 보고 있을 때 깨미 한 마리가 그 초점을 지나가고 있었다. 이상하게도 그간 애매했던

여러 성질이 마치 두 개의 초점이 겹치는 것처럼 하나로 표시되는 것으로 느껴졌다. 대과학자는 이러한 체험을 여러번 경험한다. 20세기의 최대의 수학자 포앙카레는 이 사실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다. 즉 오래도록 한 문제를 골똘하게 생각하게 되면 어느새 그 문제에 관련된 일이 무의식의 밑바닥에 가라앉게 된다. 비록 뇌의 표면에서 생각하지 않아도 무의식은 늘 생각하고 있다. 마치 암탉이 달걀을 품고 있으면 어느새 그 속에서 병어리가 스스로 크는 것처럼 무의식 속에서 문제가 스스로 정리되어 간다. 어느 순간 암암의 사소한 움직임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

일타르스님 뱀어집

"맑고 향기로운 세계를 향해 열려 있는 문(門)"

부처님의 말씀을 보다 쉽고 가깝게 대중들에게 전하셨던 일타르스님. 일타르스님의 뱀어집 《부드러운 말 한마디 미묘한 향이로다》가 출간되었습니다. 고된 삶 속에서 이리저리 흔들리며 방황하는 모든 이들에게 새로운 세계로 향하는 문을 열어드립니다. 법(法)의 향기 가득한 일타르스님의 말씀, 삶의 지표를 다시금 세워보십시오.

- I. 무엇을 위하여 살 것인가 / II. 복된 삶을 이루기 위하여 / III. 배울데 실자 / IV. 밝은 삶을 여는 계율 / V. 자기를 돌아보는 공부 / VI. 화두 드는 법 / VII. 마하반야바라밀

* 월간 '법공양'에 연재되었던 일타르스님의 주옥같은 법문은 한권에 담았습니다. 신국판 / 값 5,000원

고된 삶의 감로수 같은 일타르스님의 책모음

- 생활 속의 기도법 일상생활에서 처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법 모음집 86 / 3,500원
- 祈禱(기도) 일타르스님과 도반·선배·제자·신도들의 기도서형 영합담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도 끝도 없는 길 일타르스님 주변의 은화와 인연이야기 모음집 신국판 / 5,000원
- 시작하는 마음 초보자를 위한 불교입문 지침서 보조국사의 <초심>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영원으로 향하는 마음 원효대사의 <발심수행장>에 대한 일타르스님의 강설집 신국판 / 5,000원
- 자기를 돌아보는 마음 아문비구의 <지경문>을 읽기 쉽게 풀이한 책 신국판 / 5,000원
- 법공양문 부처님과 역대스님들의 가르침을 모아 엮은 책 신국판 / 5,000원
- 범망경보살계~5 보살계 산림법회에서 강설하신 일타르스님의 무애담 3부작을 담은 책 신국판 / 각각 6,000원
- 감로법문 듣는 것만으로도 환희심이 샘솟는 일타르스님의 육성법문 테이프 육성법문 테이프 / 5개 1세트 / 10,000원